

朝鮮 後期 關西名勝圖 연구

朴 晶 愛*

- I. 머리말
- II. 朝鮮時代 關西名勝圖의 제작배경과 양상
- III. 朝鮮 後期 關西名勝圖의 내용과 양식
- IV. 《關西名區帖》 유형의 제작시기와 화가에 대한 추론
- V. 맺음말

I. 머리말

關西名勝圖는 관서지방, 즉 平安道의 명승을 그린 實景山水畫이다. 일찍이 문학에서 시작된 八詠의 전통은 八景圖 형식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명승명소를 8景 혹은 10景으로 作畫하는 관습이 자리잡았다.¹ 특히 조선 후기 들어 眞景山水畫가 유행하면서 紀行寫景의 범위가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현존 관서명승도는 조선 중기 작품이 몇 점 알려져 있으나 18세기 이후의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전남대 강사

¹ 安章利, 「韓國八景詩 研究-淵源과 展開를 중심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참조.

그동안 실경산수화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고 金剛山을 비롯한 關東名勝, 溟陽勝景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기타 단양과 영남, 함흥 등으로 외연을 넓혀 왔지만, 관서명승을 담은 실경산수화는 별반 주목받지 못했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 일부 작품이 특별전에서 선을 보였고, 관련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으나 종합적인 접근은 시도되지 않은 형편이다.² 무엇보다 관서지역이 북한에 속하는 관계로 현장답사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關北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통치세력이었던 사대부 관료의 출신지와는 거리가 있는 소외지역이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³

국내외에 전하는 관련 화적은 관서지역의 거점이었던 平壤의 명소만을 주제로 한 작품이 가장 많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관서지역을 두루 포괄하면서 여러 폭이 한 벌을 이루는 관서명승도 계열에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관서명승도는 다섯 점이다(표 1 참조). 조선 중기 작인 李楨의 전칭작 외에는 모두 작자미상이며 18세기 이후의 작품이다. 그 중에서 필자는 작자미상의 개인 소장 《關西名區帖》과 그 유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작자미상 《관서명구첩》은 회화적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이정의 전칭작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 중 가장 먼저 제작된 예로 추정된다. 또 내용과 화풍이 엇비슷한 나머지 작품들을 해명하는 데

표 1 현전 關西名勝圖 목록

	작가	제목	수량	제작시기	재료	크기(cm)	소장처	비고
1	傳 李楨	關西名區帖	6	조선 중기	紙本水墨	52.0×74.8	개인	황해도 葱嶺山포함 / 화첩
2	미상	關西名區帖	10	18세기 말	紙本淡彩	41.7×59.3	개인	화첩
3	미상	關西十景圖	10	18세기 말	紙本淡彩	41.7×58.2	국립중앙박물관	원래 화첩, 병풍으로 개장
4	미상	韓中名勝圖帖	10	18세기 말	紙本淡彩	35.6×49.2	런던 영국도서관	Scenes in China / 화첩
5	미상	關西八景圖帖	16	19세기	絹本彩色	40.0×61.3	서울역사박물관	화첩

² 이원복, 「이정의 두 傳稱畫帖에 대한 試考」(上), 『美術資料』 34(1984. 6), pp. 52-59; 安輝濬, 「韓國의 古地圖와 繪畫」, 『海東地圖(해설·색인)』(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pp. 56-57;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pp. 609-613; 金炫志, 「朝鮮中期 實景山水畫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12), pp. 51-62; 문동수, 「조선시대 〈평양성도〉의 제작과 의미」,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1권 (사회평론, 2006), pp. 400-419; 『우리 땅, 우리의 진경』(국립춘천박물관, 2002) 참조.

³ 권내현, 『조선 후기 평안도 개정연구』(지식산업사, 2004), pp. 13-26; 강석화, 『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경세원, 2000), pp. 19-22.

있어 기준작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서명구첩》유형’이라는 범주의 설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관서명승도가 정형화되는 양상과 전후 맥락을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본격적인 관서명승도 연구의 試考라는 의미에서 먼저 문헌기록과 유전작을 토대로 조선시대 관서실경의 시각화 배경과 제작양상을 짚어보겠다. 이어서 조선 후기의 작례로 추정되는 작자미상 《관서명구첩》유형을 중심으로 내용과 양식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들 유형의 제작시기와 화가에 대해 추적함으로써 관서명승도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한 관서명승도뿐 아니라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의 전모에 다가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朝鮮時代 關西名勝圖의 제작배경과 양상

1. 제작배경

관서지역은 조선 초, 1413년(태종 13) 지방행정이 정비되면서 平安道로 개편되었고 平壤府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⁴ 그 위치가 중국 대륙의 접경지대였던 탓에 군사적 요충지였고 대외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반면 농업생산성은 낮아 토착적 시족층이 성장하기 어려웠으며 조선시대 내내 지역차별을 감수해야 했다.⁵ 한편 선초 이래로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던 평안도는 국제정세가 안정되는 조선 후기에 오면 타 지역의 결손을 보충할 만큼 재화가 풍부해졌다.⁶ 이와 같은 평안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관서지방 특유의 문화를 산출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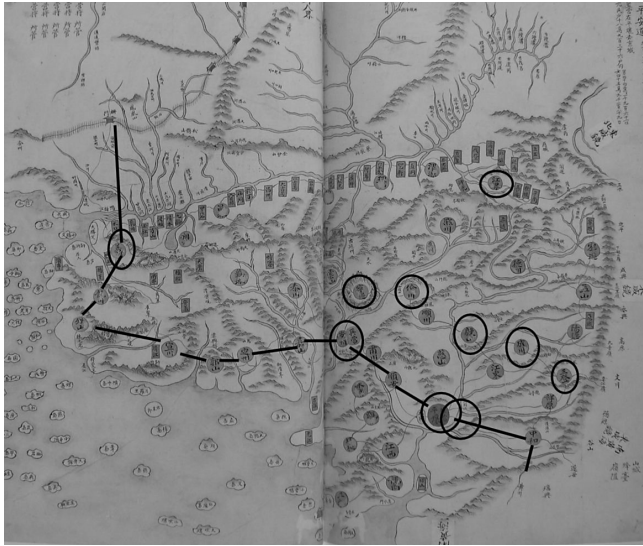
조선시대 평양을 비롯한 관서지방에 대한 문헌기록은 몇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檀君과 箕子의 터전이며 고구려 도읍을 거쳐 고려시대 西京이었던 역사성에 대한 것이다. 둘째, 임진왜란 때 적전지였던 만큼 전란상황이나 북방 대비책에 관한 내용이다.⁷ 셋째

⁴ 『太宗實錄』 13년 10월 15일 辛酉.

⁵ 조선시대 내내 소외와 차별이 심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關西와 關北, 즉 西北地方이었다. 그러나 함경도를 지칭하는 關北地方은 太祖 李成桂(1335-1408)의 고향이었던 함흥으로 인해 ‘豐沛之鄉’으로 인식되어 문인들을 유배시킬 때 관서보다 관북으로 많이 보냈다. 강석화, 앞의 책, pp. 213-225.

⁶ 吳洙彰,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潮閣, 2002); 권내현, 앞의 책; 이철성, 「평양상인과 의주상인」,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문화사』 3: 거상, 전국상권을 장악하다(두산동아, 2005), pp. 169-237 참조.

⁷ 『朝鮮王朝實錄』의 평양 기사만 해도 총 2,500여 건에 이르며, 그 중 宣祖代가 807건으로 가장 많고, 世宗代 351



도1 <平安道> 지도 『海東地圖』, 1750년대, 彩色筆寫本, 奎章閣

는 중국과 조선 사이의 사신왕래와 관련되는 기록으로서 이는 관서명승도 제작배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중국으로 사행한 횡수는 총 576회에 이르며, 육로사행시 中和부터 義州까지 관서지역을 통과해야 했다.⁸ 관서의 명승은 평양을 위시해 선천, 철산, 정주, 의주 등 노정에 직접 포함되는 곳뿐 아니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분포되어 있었다(도1).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서지역이 實錄이나 燕行錄에서 자주 언급된다. 가령 1798년(정조 22) 10월 여행했던 徐有聞(1762-?)은 『무오연행록』에서 관서명승으로 꼽히는 평양의 연광정과 안주 백상루에서 妓樂을 즐긴 사실을 전해준다.⁹

또 조선시대에는 관서지방의 역사와 풍물, 승경을 다룬 많은 詩文과 歌辭, 樂府, 紀行遊記 등이 창작되었다. 즉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린 曹偉(1454-1503)와 成侃(1439-1504)의 「平陽八詠」 이래로 다양한 장르의 체계가 되었다(표2 참조).¹⁰ 그 중 「평양팔영 처럼 한 지역

건, 成宗代 178건, 仁祖代 168건, 太宗代 146건, 中宗代 133건 순으로 집계된다.

⁸ 溟路를 통한 사행은 1621년(광해군 13)부터 對明 외교가 단절된 1637년(인조 15)까지 17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임기중, 『연행록 연구』(일지사, 2002), pp. 9-86.

⁹ 서유문, 『무오연행록』, pp. 23-24; 임기중, 위의 책, p. 239 참조.

¹⁰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平壤府. 成侃의 『虛白堂集』과 曹偉의 『梅溪集』에도 같은 시가 실려 있다. 또 평양만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는 河演의 「箕城30韻」(『敬齋集』), 李荇의 「次韻正使平壤勝蹟20首」과 「次韻副使平壤勝蹟9首」(『容齋集』) 외에도 申光漢, 沈彥光, 具思孟, 李山海, 沈喜壽, 李晬光의 시들이 확인되는데, 사행길에 지은 것임을 알려주는 예가 여러 편 있어 주목된다. 安章利, 앞의 논문, pp. 25-26 및 pp. 185-239 목록 참조.

표2 관서지방을 제재로 한 문학작품

	작가	제작시기	제목	출전	비고
1	曹偉	1454-1503	平陽八詠	『新增東國輿地勝覽』	시
2	成規	1439-1504	平陽八詠	『新增東國輿地勝覽』	시
3	任士洪	1445-1506	義州八景		시
4	李滉	1501-1570	義州雜題十二絶	『退溪集』卷1	시
5	李景奭	1595-1671	贈家姪英正關西巡察之行十一首	『白軒集』卷13	시
6	白光弘	1555년	關西別曲		가사
7	李規	16세기 말 -17세기 전반	百祥樓別曲		가사
8	작자미상	미상	箕城別曲		가사
9	작자미상	1706년 이후	香山別曲		가사
10	작자미상	1794년 이후	香山錄		가사
11	申光洙	1774년	關西樂府		악부
12	金昌翁	1706년	關西日記	『三淵集拾遺』卷28	유기
13	正祖	1752-1800	送宮官鄭民始遊香山	『弘齋全書』卷2 「春邱錄」2	시

의 승경을 일정한 수의 장면으로 묶어 읊은 시는 같은 방식의 그림과 연관된다. 대개 공격 혹은 사적 계기로 현지를 순력하고 명소의 풍광을 상찬하거나 역사와 풍물에 대해 썼으며, 특히 평양과 묘향산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그 중 石北 申光洙(1712-1775)의 『關西樂府』는 1774년 평안감사로 부임하는 樊岩 蔡濟燕(1720-1799)에게 지어준 餞別詩로 평양 일대의 산천과 명승명소가 두루 등장한다.¹¹ 또 三淵 金昌翁(1653-1722)이 1706년 봄, 관서지역을 여행하고 쓴 『關西日記』의 경로에는 평양의 연광정과 부벽루 등 관서명승도에 그려진 대부분의 누정이 포함되어 흥미롭다.¹² 김창흡은 스스로 ‘우리나라 名山은 거의 다 가보았다’고 할 정도로 산수유람을 즐긴 문인이고, 謙齋 鄭敏(1676-1759)을 적극 후원하여 진경산

11 申光洙는 1760-1761년, 관서지방을 여행하고 50여 편의 詩를 담은 『西關錄』을 쓰기도 하였다. 李起炫, 「申光洙의 關西樂府에 대한 고찰」(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pp. 21-25.

12 金昌翁, 『三淵集拾遺』卷28, 「關西日記」. 김창흡은 1706년 4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여 일 동안 가진 유람 과정에서 백상루, 영변철옹성, 사절정, 무진대, 강선루, 황학루, 부벽루, 연광정 등 관서명승도에 그려진 명승지 8곳을 방문하였다. 이 밖에 평양과 묘향산 일대의 명소를 둘러보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였다.

수화의 정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弘齋全書』에 실려 있는 正祖의 詩「送宮官鄭民始遊香山」 역시 18세기의 관서유람 풍조를 전해주는 사료이다.¹³

이처럼 관서지역은 유구한 역사의 현장이었고, 고려 이래로 그 形勝이 여러 장르의 문학적 제재가 되었다.¹⁴ 「평양팔영」을 남긴 조위와 성현의 활동시기로 볼 때, 늦어도 15세기 후반-16세기 초에는 평양의 대표적 명승 8곳이 알려진 것 같다. 또 1555년 평안도평사로 부임한 岐峰 白光弘(1522-1556)이 「關西別曲」을 쓴 16세기 중반에 오면 관서지역 전체로 문학적 관심이 확대되었다.¹⁵ 이는 관련 회화에 대한 문헌기록과 어느 정도 일치하며, 조선 후기에 쓰인 신광수의 「관서악부」나 김창흠의 「관서일기」는 진경산수화의 발달과 관련하여 눈길을 끈다.

2. 제작양상

관서지역 실경의 시각화양상은 문헌기록과 유전작의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표 1, 3 참조).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洪貴達(1438-1504)의 제시가 전하는 〈權執義孟禧遊大同江浮碧樓圖〉이다.¹⁶ 이어서 中宗代(재위 1506-1644)에는 使臣의 요청에 따라 御命으로 〈平壤圖〉를 그리게 했다.¹⁷ 明宗代(재위 1545-1567)에도 〈평양도〉를 비롯해 〈成川圖〉, 〈永興圖〉, 〈義州圖〉, 〈寧邊圖〉 등이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1560년(명종 15) 6월 2일조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상이 승선색 崔漢亨과 승지 李樛에게 명하여 永崇殿을 奉齎하게 하고, 인하여 西京의 山川과 樓觀의 景勝을 그려오게 하였는데, 이때에 畫史에게 명하여 채색을 칠하여 병풍을 만들게 하고, 또 鄭惟吉에게 명하여 詩를 짓게 하고 이양에게 명하여 記를 짓게 하고서 전교하였

¹³ 正祖, 『弘齋全書』 卷2, 「春遊錄」2, 「送宮官鄭民始遊香山」[『국역 홍제전서』 제권 (민족문화추진회, 1998), p. 85].

¹⁴ 이외에 1804년(순조 4)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미상의 「八域歌」를 비롯해 「八道歌」, 「八道邑誌歌」 등에도 관서지방이 포함되며, 歸菴 朴權(1658-1715)의 「西征別曲」이나 金芝叟의 「西行錄」 같은 시행 가시에도 등장한다. 崔康賢, 『韓國紀行文文學研究』(일지사, 1982), pp. 250-257과 pp. 274-301 참조.

¹⁵ 崔康賢, 위의 책, p. 177 및 p. 217 참조.

¹⁶ 洪貴達, 『許白亭續集』 卷3, 「題權執義孟禧遊大同江浮碧樓圖」, “幕府春風得意回 關西無處不樓臺 我今問却當時興 笑把丹青一幅開”; 高蓮姬, 「朝鮮後期 山水紀行文學과 紀遊圖의 比較연구- 農鼎그룹과 輿圖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p. 33.

¹⁷ 『中宗實錄』 32년 3월 3일 壬午 및 3월 14일 癸巳. 安輝濬 앞의 논문(1995), p. 56.

표 3 문헌기록에 나타난 關西 관련 繪畫

	시기	작가	제목	출전	비고
1	15세기 말 -16세기 초	미상	題權執義孟禧遊大同江浮碧樓圖	洪貴達(1438-1504), 『許白亭續集』 卷3	
2	1537년	金寧	平壤圖	『中宗實錄』 권84, 32년 3월 3일 및 3월 14일	使臣 요청
3	1560년/1562년 /1562년	미상	平壤圖屏	『明宗實錄』 15년 6월 2일/ 17년 6월 17일/11월 10일.	御命
4	1562년	미상	成川圖屏, 永興圖屏, 義州圖屏, 寧邊圖屏	沈守慶의 『體閑雜錄』, 金鉉의 『禹庵集』	御命
5	17세기	미상	題最樂堂八景屏風圖後	申翼相(1634-1697)의 『醒齋集』	練光亭 포함
6	18세기 중반 (1767년경)	미상	題關西地圖三首 (百祥樓, 練光亭, 降仙樓)	『弘齋全書』 卷1, 『春邱錄』 1	
7	1782년	미상	平壤圖屏, 關西地圖屏	『正祖實錄』 6년 10월 22일	御命
8	18세기 후반 (1783년경)	미상	降仙樓圖	俞晚柱, 『欽英』 癸卯部 11月 15日條	

다. “나는 옛 도읍을 갖추어 보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혹 사람들 중에 무익한 일에 뜻을 둔다고 탄식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¹⁸

위의 기사에서 명종은 ‘옛 도읍으로서의 평양을 보고 싶어’ 하명했고, 당시 그려진 <평양도>는 병풍 형식의 채색화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562년(명종 17) 6월 17일조, 아래 기사는 마침내 정유길과 이양의 시문이 진상되었음을 알려준다.

우참찬 鄭惟吉과 예조 판서 李樛이 제출한 시와 서문을 입계하니, 진교하였다. “경들이 지은 시와 서문을 보니 글의 의미가 아주 합당하다.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상은 경연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詞章에 뜻을 두었으며 서화와 새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다. 內臣이 出使할 때는 畫史를 대동하고 가서 지나가는 곳 중의 명승지를 묘사하

¹⁸ 『明宗實錄』 15년 6월 2일 丁酉. “上命承傳色崔漢亨 承旨李樛 奉審于永崇殿 因書西京 山川樓觀之勝以來 至是命 畫史 繪綵爲屏 又命鄭惟吉作詩 李樛作記 傳曰 欲予備觀古都矣 恐人或有恨其留意於無益者.” 진준현, 앞의 책, p. 610.

어 그것으로 병풍을 만들었다. 화사 4-5명이 항상 궐 내에 있었으며 집비둘기·닭·오리를 널리 구하여 禁苑에서 길렀다. 심지어는 그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 바침으로써 은총을 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¹⁹

덧붙여 ‘관리들이 임지로 나갈 때 화가를 대동하여 지나는 명승지를 그려 바치는’ 관행이 있었음도 확인된다. 이는 조선 중기 실경산수화의 제작계기와 방식에 대한 전언으로서 의미가 있다. 명종이 至近 거리에 화원 네다섯 명을 대령시켜 놓고 그림을 그리게 한 사실도 눈길을 끈다.

沈守慶(1516-1599)은 같은 해 명종이 평양뿐 아니라 成川·永興·義州·寧邊 경승이 담긴 작품을 제작케 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명종 임술년 겨울에 왕명으로 金澍·朴忠元·吳祥과 나들 政院에 불러 비단에 그린 긴 병풍 네 벌을 내리시니, 병풍마다 8폭으로 되어 있고 그 끝 쪽은 비워 두었다. 곧 成川圖·永興圖·義州圖·寧邊圖였다. 下敎하기를, “김주는 성천도를, 박충원은 영흥도를, 오상은 의주도를, 심수경은 영변도를 각기 맡아 記文과 長篇詩를 지어서 비어 있는 비단쪽에 직접 써서 들이라” 하였다. 네 명이 拜伏하고 황궁히 물러와서 저마다 수일 내에 짓고 써서 올렸는데, 나와 같은 거친 문장과 졸렬한 글씨로 성상의 상을 입기까지 하였으니, 영광스럽고도 다행함을 어찌하리오. 이보다 앞서 漢陽宮闕圖가 있었는데, 洪暹에게 기문을 짓고 鄭士龍에게 장편시를 짓게 하였다. 또 平壤圖는 鄭惟吉이 장편시를 짓고 全州圖는 李樑이 장편시를 지었는데, 모두 병풍에 그린 것이라고 한다. 듣자니, 이 병풍 그림을 좌우에 두고 영원히 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壬辰年의 병화로 모두 불에 타고 말았으니, 아, 애통하다.²⁰

¹⁹ 『明宗實錄』 17년 6월 17일 己巳. “右參贊鄭惟吉 禮曹判書李樑 以所製詩序入啓 傳曰 觀卿等所製詩序 詞意正當 予用嘉焉 數年來 上愈御際筵 而留意詞章 尤嗜書畫禽鳥之玩 內臣出使 併挾畫史 描所過勝概 以爲屏幀 畫史四五輩 恒在闕內 旁求家鷄雞鴨 畜之禁苑 至有購求供奉 以干恩寵焉”

²⁰ 沈守慶, 『遺閑雜錄』 “明廟壬戌冬 命召金澍朴忠元吳祥暨守慶于政院 下繪畫長屏次四件 各連八幅 而空其末幅 乃成川永興義州寧邊圖也 敎曰 金澍成川圖 朴忠元永興圖 吳祥義州圖 守慶寧邊圖 各製記及長篇詩 手寫于空幅以進 四人拜伏謝懼而退 各於數日內 製寫以進 如臣燕文拙筆 至塵睿賞 何其榮日幸也 前此又有漢陽宮闕圖 命洪暹製記 鄭士龍製長篇詩 平壤圖鄭惟吉製長篇詩 全州圖李樑製長篇詩 皆是屏幀云 閱諸置畫左右 將垂不朽 而壬辰兵燹 應烈焰 嗚呼痛哉” 秦弘燮 편저, 『韓國美術史資料集成-朝鮮中期繪畫篇』 4 (일지사, 1996), p. 39; 진준현, 앞의 책, p. 610.

위의 기록은 당시 정황을 상세히 전해주니 네 벌의 8쪽 병풍에 각기 7쪽에 걸쳐 그린 〈成川圖〉, 〈永興圖〉, 〈義州圖〉, 〈寧邊圖〉가 제작되었던 것이다. 또 〈平壤圖〉 외에 〈奠陽宮闕圖〉와 〈全州圖〉 병풍의 존재를 알려주며, 모두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버린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명종실록』 1562년(명종 17) 11월 10일조에서도 발견된다.

김주·박충원·오상·심수경이 成川·安邊·義州의 圖記와 長篇을 지어 올리니, 전교하였다. “이 지은 글을 각각 그림 위에 써서 들이라.”²¹

명종 대 그려진 이들 작품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목으로 미루어 그 내용이 성천의 백상루, 의주의 통군정, 영변의 약산동대 등 각각 현지의 대표적 누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정황 아래 현전하는 懶翁 李楨(1578-1607)의 전칭작 《關西名區帖》도 제작되었을 것이다.

17세기를 지나 18세기 영조 대 기록으로는 정조(1752-1800)가 세손 시절에 쓴 詩「題關西地圖」 세 수가 주목된다.²² 말미의 제목에 의거하면 평양 練光亭, 성천 降仙樓, 안주 百祥樓 지도를 보고 읊은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연광정〉처럼 내용이 자못 구체적이고 어조는 회화적이다.

동명의 옛 도읍은 기자의 자취를 이었는데	東明舊邑象箕躔
높은 누각 강에 임한 경치가 가장 어여쁘네	高閣臨江景最憐
선객은 하늘에 조회하고 어느 곳으로 갔는고	仙客朝天何處向
대동문 밖에는 물만 하늘에 연하였구나 ²³	大同門外水連天 練光亭

이 시들은 모두 관서명승으로 꼽히는 樓亭名을 밝혀 놓았고, 내용 역시 누정과 주변 경관에 초점이 맞춰져 일반적인 지도보다는 그림에 부친 시 분위기가 난다. 그러니까 정조가 題한 ‘관서지도’는 다분히 회화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관서명구첩》 유형

²¹ 『明宗實錄』 17년 11월 10일 庚寅. “金澍 朴忠元 吳祥 沈守慶 進所製成川 安邊 義州圖記及長篇 傳曰 以此製 各書于圖上而入”

²² 正祖, 『弘齋全書』 卷1, 「春邸錄」 1, 「題關西地圖三首」. 같은 사가 『列聖御製』 第2冊 卷38 (영인본 제권, pp. 194-195)에도 실려 있다.

²³ 번역은 정조, 임정기역, 『국역 흥재전서』 제 권 (민족문화추진회, 1998), pp. 15-16에서 재인용.

과 관련하여 뒤에서 재론하겠다. 알려진 대로 정조는 재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는 1782년(정조6) 10월, <평양도> 병풍과 <관서지도> 병풍을 제작케 했다.

道料는 성대한 일로서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대동강에서 유람을 하사하는 것은 그 전부터 유래된 옛 규례라고 하였다. 경은 그림을 그려 屏風을 만들도록 하라. 本府는 성인 箕子의 옛 도성으로서 井田의 남은 터가 있는데다가 城市의 民物이 풍성하여 큰 도회지가 되었으므로 방어의 중요함이 이곳보다 더한 곳이 없다. 그래서 선왕께서 누차 방백에게 명하여 그림을 그려 올리도록 한 것이다. 故事에 따라 平壤圖과 道内の 地圖로 각기 병풍 하나씩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²⁴

행간의 분위기로 보아 <평양도>는 현전하는 목판본 계열 ‘평양전경도’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관서지도>의 경우 「제관서지도」의 내용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16세기 중종 대 이래로 관서지역에 대한 왕실의 관심이 꾸준하였고, 관행적으로 그림 형식을 빌려 특정 경관을 기록하고 회화화했다. 영·정조 대 기록은 당시 備邊司와 弘文館에서 繪畫式 郡縣地圖集이 활발히 간행된 사실과 함께 관서명승도 연구에 시사점을 던진다. 또 홍귀달과 신익상, 유만주 등이 남긴 기록은 문인사대부들이 감상했던 관서명승도의 편린으로서 의의가 있다(표3 참조). 이들 문헌으로 확인되는 작례는 관서명승도의 제작양상을 일별하고 현존작의 위상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III. 朝鮮 後期 關西名勝圖의 내용과 양식

서두에 언급한 대로 필자가 조사한 관서명승도는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다섯 점 모두 원래 화첩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정의 전칭작 외에는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작자미상의 관서명승도는 작품의 형식뿐 아니라 그려진 내용과 화면구성, 적용된 양식 등에 교집합을 형성하는 요소가 많아 유형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 소장자의 작자미상 <관

²⁴ 『正祖實錄』 6년 10월 22일 乙酉. “道料係是盛舉 唱榜後大同江賜遊 又是流來舊規云 卿其圖畫作屏 本府以箕聖古都有井田遺址 都市民物之殷富 爲大都會 關防之重 莫向於是地 先朝屢命方伯圖進 依故事平壤圖及道內地圖各作一屏以進” 진준현, 앞의 책, pp. 610-611.

서명구첩》은 그 내용과 완성도 면에서 기준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관서명구첩》 유형’이라는 명제하에 조선 후기 관서명승도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 《關西名區帖》 유형의 내용과 현장성

관서명승도의 주제는 말 그대로 평안도 지역에 자리한 명승명소이다. 화면에는 하나같이 樓亭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의 경관이 담겨 있다.²⁵ 전통시대 누정은 臺나 언덕, 城 위에 세워졌고 강하를 끼고 있어 산수경관이 아름다웠다. 지면보다 높은 누정의 위치는 사방을 조망하기 용이하여 遊興賞景處로 기능하였다.²⁶ 특히 그림 속 누정은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대상지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평안도에는 경상도, 전라도에 이어 많은 누정이 있었다.²⁷ 모두 빼어난 풍치를 자랑했으며 각각에 얽힌 인문적 가치도 명성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예를 들어 ‘백 가지 좋은 것을 다 볼 수 있는 누각’이라는 안주 백상루는 고려시대 전투를 지휘하는 將臺였는데, 1753년(영조 29)에 중수한 바 있다.²⁸ 평양의 연광정은 대동강변 德巖 위에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사신들이 통과할 때마다 酒宴이 베풀어졌던 장소이다. 백상루, 연광정과 함께 ‘평안도 3대 名閣’으로 꼽히던 의주 통군정은 압록강변 三角山 위에 있는 정자로서 역시 사신들을 영접하고 배웅하는 곳이었다.²⁹

현존 관서명승도의 내용을 보면, 우선 작자미상의 《관서명구첩》과 《관서십경도》에는 거의 같은 장면이 실려 있다(표 4 참조). 이경의 전칭작에는 〈控江亭〉, 〈納淸亭〉 등 작자미상 《관서명구첩》에 없는 장면이 세 폭 더 있다. 나머지 네 점의 경우 일치하는 장면이 많아 시기별 변화상을 보여준다. 특히 ‘백상루’는 모든 작품에 포함되어 ‘연광정’과 함께 관서를 대표하는 명소였음이 확인된다.

우선 작자미상의 개인 소장 《關西名區帖》은 10폭의 畫帖 형식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근래 새로 장황하여 원래의 순서는 알 수 없다.³⁰ 전체적으로 필치가 치밀하고 완성

²⁵ 실경산수화를 누정문화와 연계시켜 다룬 논고로는 박은순, 「朝鮮時代の 樓亭文化와 實景山水畫」, 『美術史學研究』 250 · 251 (한국미술사학회, 2006. 9), pp. 149-186가 있다.

²⁶ 朴俊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 제7집(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pp. 6-9.

²⁷ 朴俊圭, 위의 논문, pp. 9-11; 유호진·우용순, 「樓亭題詠의 시공간적 분포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40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pp. 52-70 참조.

²⁸ 권정은, 「(百祥樓別曲)의 누정 문학적 정체성」, 『語文學』 第93輯(韓國語文學會, 2006), pp. 163-165.

²⁹ 『民族文化大百科辭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 86-87; 평양향토사편집위원회, 『평양지』(평양: 국립출판사, 1959; 영인본: 한국문화사, 1999), pp. 305-306 참조.

표 4 작품별 關西名勝圖의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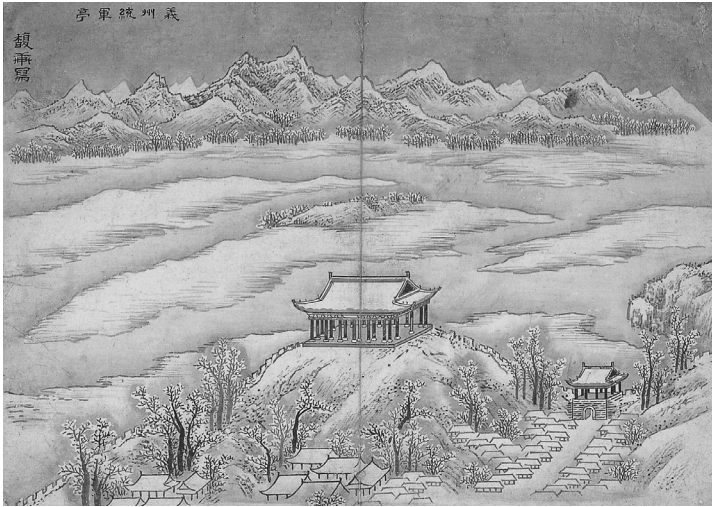
	누정	지명	傳 李楨	개인	국립중앙박물관	영국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關西名區帖	關西名區帖	關西十景圖	韓中名勝圖帖	關西八景圖帖
1	澹澹亭	殷山		○	○		○
2	降仙樓	成川		○	○	○	○
3	統軍亭	義州		○	○	○	○
4	引風樓	江界		○	○		○
5	浮碧樓	平壤		○	○		○
6	無盡臺	俗川		○	○		
7	藥山東臺	寧邊		○	○	○	○
8	百祥樓	安州	○	○	○	○	○
9	四絕亭	魚川		○	○		
10	練光亭	平壤	○	○			○
11	黃鶴樓	三登			○		○
관서명승장면 수			2(+3)	10	10	4	9(+7)

도가 높아 공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매 폭의 상부에 단정한 隸書로 地名과 樓亭名을 써 넣었다. 마지막 폭이었을 〈統軍亭〉에는 畫題 아래 “醜癸寫”라는 款書가 있는데, 복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도2). 이외에 화첩의 제작자나 시기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印章이나 題跋은 없다.

이 작자미상 《관서명구첩》과 화면 크기와 내용이 비슷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關西十景圖》 병풍도 중앙에 접힌 자국이 있어 원래는 화첩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¹ 첫 폭 뒷면의 “關西十景”이라는 題簽은 바탕이 누렇게 바래 개장 이전 것으로 보인다(도3). 모든 화면에서 부분적인 박락과 얼룩, 줍먹은 흔적이 확인된다. 화면의 상부 여백에 작자미상 《관서명구첩》과 마찬가지로 지명과 누정명을 行書로 쓴 화계가 있는데, 〈사절정〉에서 ‘魚川’의 ‘魚’자를 고쳐 썼는가 하면, 〈藥山東臺〉는 ‘藥’자를 ‘樂’으로 誤記하였다. 작자미상 《관서명구첩》과 달리 이 《관서십경도》에는 많은 인장이 찍혀 있는데, 총 8種 43顆나 된다(표5 참조).³²

³⁰ 작자미상 《關西名區帖》 도판은 『우리 땅, 우리의 진경』(국립춘천박물관, 2002), 도26 참조

³¹ 《關西十景圖》의 전체 도판은 위의 책, 도25 참조.



도2 작자미상 《統軍亭》
《關西名圖帖》
紙本淡彩
41.7×59.3cm,
개인 소장



도3 작자미상 《關西十景圖》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열 폭에 공통적으로 찍혀 있는 “金弘道印”은 나머지 인장과 색이 다른 백문방인으로 화제와 함께 오른쪽 상부에 날인되어 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檀園 金弘道(1745-1806 이후)의 《風俗圖帖》에 찍힌 인장과 크기와 새김이 일치한다.³³ 역시 모든 화폭에 있는 주문방인은 “貞敬夫人申氏”라는 부인도서이다. ‘貞敬夫人’은 조선시대 文·武官의 부인에게 내리던 최고의 封爵이었다.³⁴ 다섯 폭에만 찍힌 한 쌍의 백문방인은 “韓山人”과 “李行藏”으로 한산 이씨 李行이 소장했음을 말한다. 〈부벽루〉에만 찍혀 있는 커다란 주문방인은 “忠

³² 완전한 판독이 어려운 印章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인장의 釋讀에 도움을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의 成仁根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³³ 김홍도의 《風俗圖帖》도판은 『檀園 金弘道-탄신250주년 기념 특별전』(三星文化財團, 1995), 도121-145 참조.

³⁴ 오희복, 『봉건 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여강출판사, 1992), p. 274.

표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關西十景圖》에 찍힌 인장

	내용	인장	세김	종류	날인 장면	크기
1	金弘道印		弘金道印	白文方印	10폭 전체	1.8×1.8
2	貞敬夫人申氏		人貞申敬氏夫	朱文方印	10폭 전체	5.8×5.0
3	一壑一丘		壑一丘一	白文方印	백상루, 강선루, 황학루, 약산동대, 무진대, 통군정	3.9×3.9
4	韓山人		山韓人	白文方印	부벽루, 강선루, 담담정, 무진대, 통군정	3.1×3.1
5	李行藏		藏行李	白文方印	부벽루, 강선루, 담담정, 무진대, 통군정	3.2×3.2
6	忠翊府印		府忠印翊	朱文方印	부벽루	8.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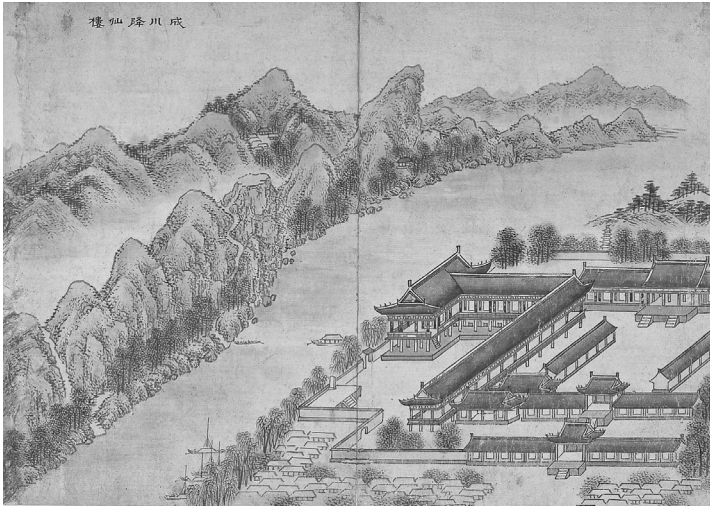
翊府印”이다. 충익부는 조선시대 ‘원조공신’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1701년(숙종 27) 忠勳府에 합쳐졌다.³⁵

이들 인장은《關西十景圖》가 ‘한산 이씨 이행’이 소장한 적이 있으며, ‘정경부인 신씨’나 중앙 관청과도 인연이 있었던 작품임을 말해준다. 특히 김홍도의 인장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화제와 인장이 改裝 시 늘인 흔적으로 보이는 외곽선에 걸쳐 있어서 적어도 한 차례 개장한 후 부기한 것으로 분석된다.³⁶ 모두 後落이라 해도 인장에 따라 인주 색깔이 달라 찍은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그 인장들이 《관서십경도》의 유전내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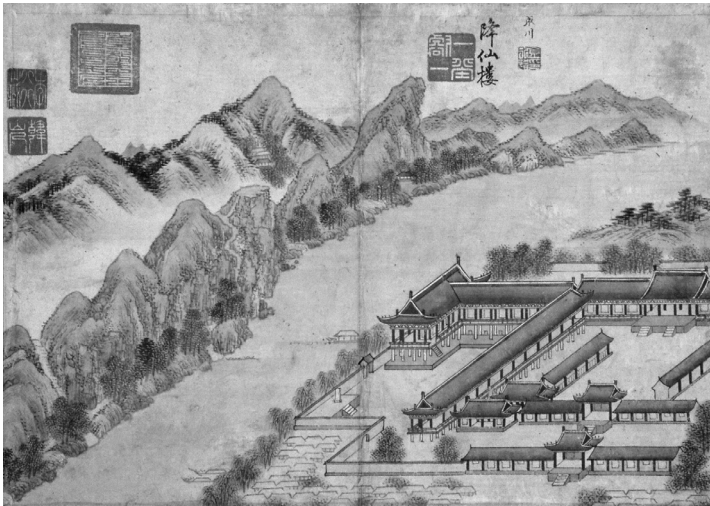
이처럼 작자미상의 《관서명구첩》과 《관서십경도》는 화면의 크기와 내용, 구성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연광정〉과 〈황학루〉가 한쪽에만 실려 있는 것은 애초의 草本이 열 폭 이상이었음을 시사한다. 《관서십경도》가 좀더 굵고 느슨한 필선으로 형상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畫風은 같다. 단지 〈降仙樓〉 장면의 선박처럼 《관서십경도》의 세부 景物이 일부

³⁵ 오희복, 위의 책, pp. 323-324.

³⁶ 관서명승도 작품들의 장황상태 분석에 도움을 주신 낙원포구사 이효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도4 작자미상, 《降仙樓》,
《關西名區帖》,
紙本淡彩,
41.7×59.3cm,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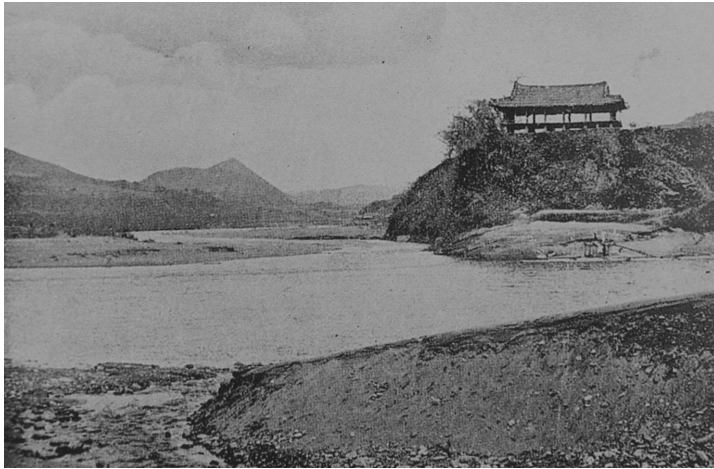
도5 작자미상, 《降仙樓》,
《關西十景圖》,
紙本淡彩,
41.7×58.2cm,
국립중앙박물관

생략되었다(도4, 5). 회화적 관습상 移摹한 작품이 原本보다 소략해지는 만큼 《관서명구첩》이 상대적으로 초본에 가까운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느 시기엔가 관서명승도가 ‘관서명구첩’ 유형’으로 정형화되었음을 방증한다. 영국도서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또 다른 화첩들이 유사한 내용과 화풍을 지니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표1, 4 참조).

한편 여타의 실경산수화와 마찬가지로 관서명승도의 현장성은 대상지역의 지형지세나 시각적 실재감을 통해 구현되었다. 사진과 지도를 유형화된 《관서명구첩》의 화면과 비교해



도6 작자미상 <仁風樓>
 《關西名區帖》
 紙本淡彩
 41.7×59.3cm,
 개인 소장



도7 仁風樓 사진(『가야할
 山河』, 민족통일중앙
 협의회, 1987, p.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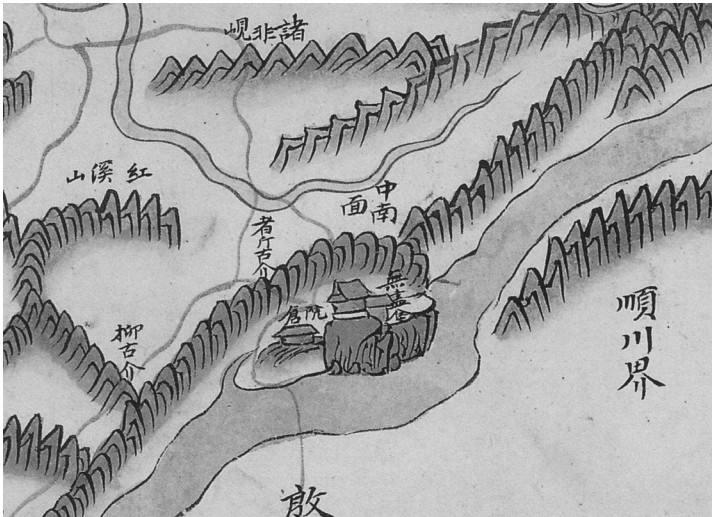
봄으로써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안주 <백상루>는 사진이 화면보다 누정을 가까이서 포착하여 모든 경물이 일치하지 않지만, 백상루와 그 언덕 너머 청천강을 상상할 수 있다. 비록 누정 공간을 구획하는 담과 문은 황폐해졌지만, 두 채가 맞물려 지어진 누정과 계단의 모습이 그림과 같다. 안주전경을 찍은 사진은 화면의 오른쪽으로 성곽과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풍경에 상응한다.³⁷ 강계

³⁷ 안주 백상루의 옛 모습은 『그리운山河-望郷 三十年』(景仁文化社) 및 『가야할山河』(민족통일중앙협의회,



도8 작자미상 《無盡臺》
《關西名區帖》
紙本淡彩
41.7×59.3cm,
개인 소장



도9 《汾川郡》지도 부분,
『海東地圖』, 1750년대,
彩色筆寫本, 奎章閣

의 독로강과 북문강이 합류하는 강가 절벽의 〈仁風樓〉 사진은 누정과 물길, 건너편 산이 만들어 내는 형세가 화면에 근사한 편이다(도6, 7). 시점이 유사한 의주 〈통군정〉의 경우 화면에 三角山頂의 정자와 의주성, 얼어붙은 압록강과 중강이 펼쳐지고, 건너편에 산악이 자리하고 있다.³⁸ 경물간의 비례로 볼 때 통군정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고,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1987)에 실린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않는 강 건너 풍경까지 끌어안았다(도 2). 이처럼 부분적으로 실경을 압축하고 변형하는 방식은 전체 화폭에 걸쳐 있다. 기본적인 지형지세를 살리되 경물간의 거리와 크기는 화면에 따라 조절한 것이다. 그러나 그려진 경물의 형상이나 지리적 형세는 실제 모습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관서명구첩》유형은 이처럼 누정에서 직접 사방으로 조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인근의 지형지세까지 포괄하였다. 안주 〈백상루〉 화면을 1750년대 홍문관에서 제작한 『海東地圖』 중 〈安州牧〉 지도와 비교해보면, 누정과 그 위편 성곽을 따라 安州城의 北門과 東門이 보인다.³⁹ 화면은 淸川江 한가운데 자리한 七佛島, 그 너머 連山까지 넓은 공간을 소화한 것이다. 개천 〈무진대〉도 누대를 감싼 大同江 상류의 물길 모양과 인근 산의 형국이 〈价川閣〉 지도에 상응한다(도 8, 9). 한편 水波를 표현하지 않고 청색 淡彩만으로 표현한 江河의 도식적인 묘법도 지도식에 가깝다. 다른 장면도 비슷해서 《관서명구첩》유형의 제작 시 군현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회화식 군현지도 제작에는 畫員들이 동원되었고 궁궐과 관청에 비치된 양도 상당했다. 실경을 그릴 때, 지도는 초본의 보완에 효과적인 지침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정조 때에는 제작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확성과 사실성을 지도의 본령으로 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⁴⁰ 그러한 분위기는 동 시기 진경산수화가 시각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양상과 통한다. 이와 같이 《관서명구첩》유형은 실경으로서의 현장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양식이라는 회화적 장치에 의해 최종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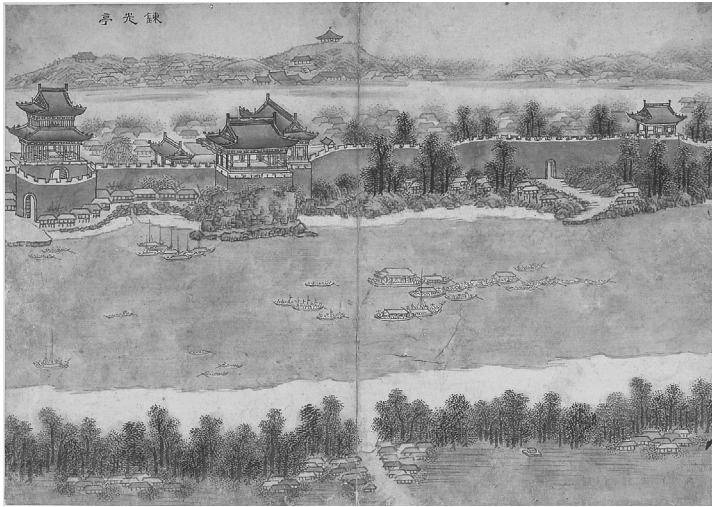
2. 《關西名區帖》유형의 양식과 영향

《관서명구첩》유형에 나타나는 관서명승도의 양식은 構圖와 筆墨法, 細部表現, 設彩法을 매개로 살펴볼 수 있다. 화면은 대개 近景 혹은 中景에 누정과 물길을, 遠景에 산악을 포치한 수평 혹은 사선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鍊光亭〉 장면을 이정의 전칭작과 비교하면, 조선 중기 구도를 계승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한층 짜임새 있게 변화했다(도 10, 11). 필묵법은 물론이고 산과 건물 등 경물의 사실성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어 분명한 시차가 드러난다. 또한 18세기 전반 정선이 그린 〈鍊光亭〉 역시 누정과 대동강을 사선으로 俯瞰하여 시점이 다르

³⁸ 의주 통군정 사진은 『가야할山河』(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7), p. 96 참조.

³⁹ 〈安州牧〉 지도는 『海東地圖』 下(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p. 182 참조.

⁴⁰ 배우성,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일지사, 1998), pp. 125-203.



도10 작자미상 〈鍊光亭〉,
《關西名區帖》,
紙本淡彩,
41.7×59.3cm,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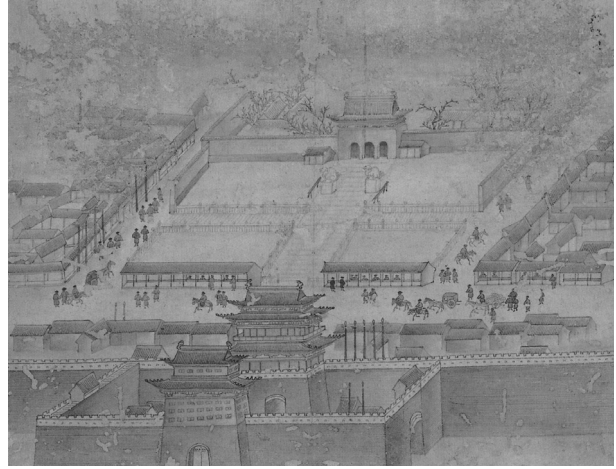
도11 傅李楨 〈鍊光亭〉,
《關西名區帖》,
紙本水墨,
74.8×52.0cm,
개인 소장

다(도12). 《관서명구첩》 유형은 넓은 공간을 부감하면서 중경이나 원경을 煙雲으로 처리하여 거리감을 암시하고 공간감을 더했다. 특정 건물을 근·중경에 포치해 원근감을 배가시키는 구도는, 개인 소장의 김홍도 전칭작 《金剛四郡帖》과 상통한다.⁴¹ 한편 완벽에 가까운 평행사선투시도법이 적용된 것도 이 유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강선루〉의 건물배치법은

⁴¹ 『穉圃 金弘道-탄신250주년 기념 특별전』(三星文化財團, 1995), 도1-60 참조.



도12 鄭敎, 〈鍊光亭〉, 絹本淡彩,
29.0×23.5cm, 暹오티라엔수도원



도13 작자미상, 〈正陽門〉, 《燕行圖帖》, 1784년 이후,
紙本淡彩, 34.9×44.7cm,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784년 이후의 작품으로 밝혀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연행도》의 투시도법과 흡사하다(도4, 13).⁴² 또 1795년과 1796년에 편찬된 『園幸乙卯整理義軌』(1797년 간행)나 『華城城役義軌』(1801년 간행) 卷首 판화에 적용된 방식이기도 하다. 즉 179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화원들이 제작한 진경산수화와 기록화에 나타나는 화법으로 시각적 사실감이 확연하다.⁴³

주요 산악은 먼저 중목의 끊일 듯 다시 이어지는 필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내부에 좌우대칭에 가까운 거친 披麻皴를 가하여 능선의 굴곡을 살렸다(도14). 그 위에 米點과 苔點을 더하였고 제 봉우리에 맑은 녹색과 갈색 담채를 번갈아 썼다. 이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산의 능선과 좌우대칭의 필선으로 주름을 표현한 산은 김홍도가 1795년경에 그린 〈西城狩獵圖〉의 산표현과 닮았다(도15). 간송미술관 소장 〈關東八景圖〉나 1796년 작 〈永郎湖〉의 산도 양쪽으로 빗겨 굽는 필선이 굴곡을 이룬다.⁴⁴ 역시 김홍도의 전칭작 〈北一營圖〉에서도 끊일 듯 이어지는 탄력 있는 윤곽선과 더불어 유사한 필선과 목점으로 처리한 산언덕이 보인다. 또한 지도를 연상시키는 하천의 양안 표현법은 안개에 묻힌 산그늘과 地面 처리에도 적용했다(도8). 이처럼 일률적으로 횡선을 나열하는 방식은 김홍도 전칭작 〈北一營圖〉와 〈南小營圖〉의 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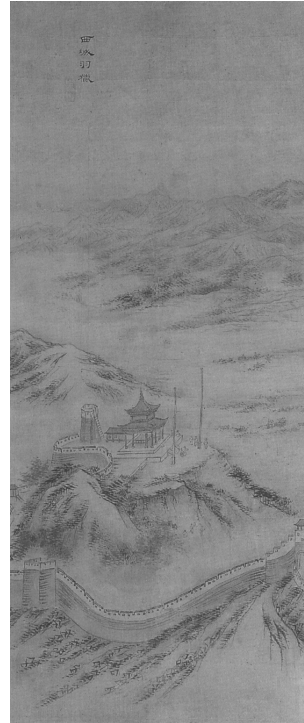
⁴² 정은주, 「1760年 庚辰冬至燕行과 《鄱陽館圖帖》」, 『明清史研究』 第25輯(明清史學會, 2006), p. 116.

⁴³ 姜寬植, 「眞景時代後期 畫員畫의 視覺的 寫實性」, 『濶松文藝』 49(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95), pp. 52-69.

⁴⁴ 『檀園 金弘道-탄신250주년 기념 특별전』(三星文化財團, 1995), 도 67, 도 68 및 도 77 참조.



도14 작자미상, 〈浮碧樓〉, 《關西名區帖》, 紙本淡彩, 41.7×59.3cm,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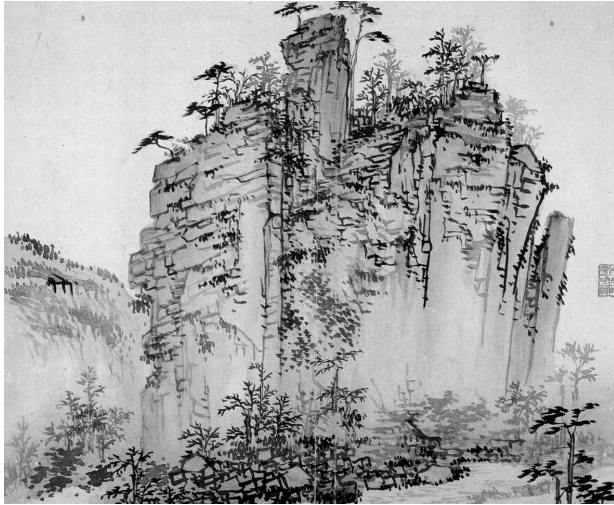
도15 金弘道, 〈西城羽獵圖〉, 《華城春秋八景圖》, 1795년경, 絹本淡彩, 97.7×41.3cm, 서울대학교박물관

에 쓰였는가 하면, 그의 전칭작 《금강사군첩》에 구사된 화법이기도 하다.⁴⁵ 흔히 김홍도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일컬어지는 목판본 계열 〈평양도〉의 도로와 지면, 사구 표현에서도 발견된다.⁴⁶ 이외에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華城全圖〉의 도로 부분도 같은 필치로 처리하여 18세기 말 화원화풍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부벽투〉를 위시해 《관서명구첩》 유형에 그려진 바위 절벽은 중형의 각진 곁을 살리면서 짧은 점선을 더해 질감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바위를 묘사할 때 예리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의 각선을 살려 처리하는 방식은 김홍도식 암벽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본 틀이 전칭작 《금강사군첩》이나 1796년 작 《丙辰年畫帖》에 부합한다(도14, 16). 특히 〈舍人巖〉의 좀더 굵고 부드러운 필선은 《관서십경도》에 가깝다. 또 판화의 특성상 딱딱하고 도식적이지만 목판본 계열 〈평양도〉, 그리고 〈舟橋圖〉 같은 의궤 圖說의 바위 표현법과도 상통한다.

⁴⁵ 김홍도 전칭작 〈北一營圖〉와 〈南一營圖〉는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고려대학교박물관, 2001), 도43, 도44 참조.

⁴⁶ 趙子庸·金哲淳 共編, 『朝鮮時代民畫』 下(예경, 1989), 도260-2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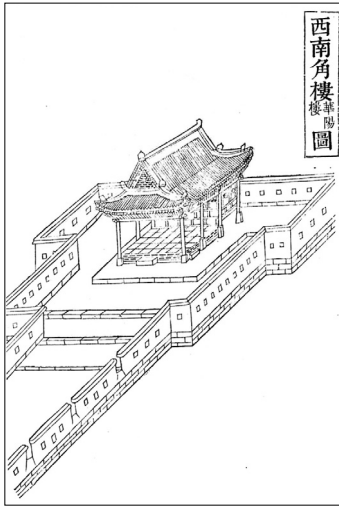


도 16 金弘道 <舍人巖> 《丙辰年畫帖》, 1796년 紙本淡彩, 26.7 × 31.6cm, 삼성미술관 리움

冬景으로 그려진 <통군정>을 제외하면 《관서명구첩》 유형의 화면에는 봄날의 정취가 가득하다. 연한 담채의 산빛이 그러하고, 수양버들이나 점묘로 표현한 잡목들, <사절정>의 화사한 꽃나무도 봄의 계절색을 풍긴다. 산언덕의 꼭대기나 능선의 송림은 정선 이후 전형화된 'T'자형 소나무 군락으로 처리했다. 또 앙상한 잔가지의 표현법은 김홍도 이후 보편화된 樹枝法이며, 點描 위주의 기계적 수지법이 김홍도의 전칭작 《금강사군첩》과 유사하다. 특히 동어반복적인 수지법이 화면에 통일감을 부여하는데, 전반적으로 김홍도 계열의 18세기 후반 회원풍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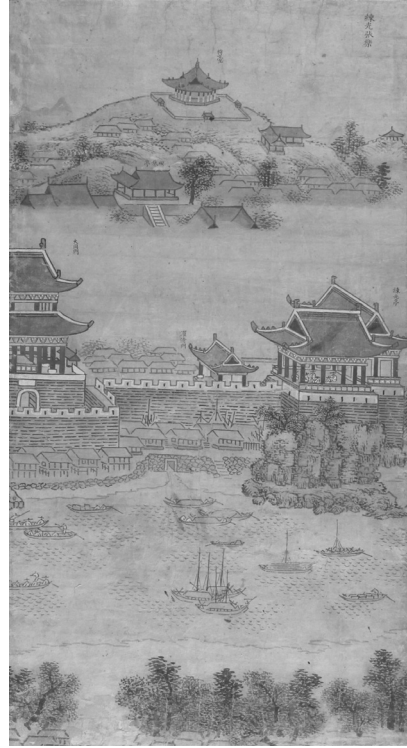
《관서명구첩》 유형에는 피마준이나 미점 같은 南宗畫風과 더불어 지도나 판화의 표현법도 쓰였다. 무엇보다 圖畫署 화풍의 특징이 역연하다. 그 하나는 누정이나 성곽을 자를 대고 그은 듯 명징한 필선으로 묘사한 界畫法이다. 즉 기단과 기둥, 포작 등 건축 부재를 상세히 묘사하고 채색을 더해 단장했다(도10). 이는 궁중 행사기록화나 장식화에 쓰이는 工筆畫法으로 의심할 바 없는 회원의 숨씨이다. 또 건축물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까지 3차원적 시각으로 재현하는 방식은 『華城城域儀軌』의 도해법과 같다(도17). 기왓골 없이 벽의 농담만으로 음영을 나타낸 지붕 표현은 평행사선투시도법과 함께 화가가 서양화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산언덕에 청색·녹색·갈색 계열의 맑은 담채를 혼용하는 設彩法이다. 玄齋 沈師正(1707-1769)이나 豹庵 姜世晃(1713-1791)의 작품에서도 보이며 18세기 후반 이후 정착된 화법이다. 1796년 작 김홍도의 <玉筍峯>에 쓰였고, 진채이긴 하지만 김홍도의 전칭



도17 『華城城域義軌』중 〈西南角樓〉,
1796년, 奎章閣

도18 작자미상 〈練光張樂〉,
《平壤八景圖》紙本淡彩,
72.2×39.5cm,
온양민속박물관



작으로 지칭되는 《華城陵幸圖屏》의 채색법과도 상통한다.

한편 《관서명구첩》 유형과 동일한 화풍으로 그려진 평양도가 전하고 있어 흥미롭다.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平壤八景圖〉로서, 네 폭 상부의 畫題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平壤八詠」과 거의 일치하여 제제의 연원을 알 수 있다.⁴⁷ 그 중 제2폭과 제8폭, 즉 〈浮碧航月〉과 〈練光張樂〉의 주제는 《관서명구첩》 유형에 포함되는 장면이다 (도18). 이들은 상하로 긴 화면의 특성에 맞게 상대적으로 좁은 경관을 클로즈업했고 시점도 약간 차이가 난다 (도10, 18). 그러나 기본 구성과 화풍은 《관서명구첩》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례인 런던의 영국도서관 소장 《韓中名勝圖帖》에는 이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명승도가 섞여 있다.⁴⁸ 표제가 없는 《한중명승도첩》도 일부 화폭이 탈락되는 등 개장했음

⁴⁷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平壤八景圖〉는 현재 각 폭이 별도의 액자로 표장된 상태지만, 원래는 8폭 병풍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⁴⁸ 《韓中名勝圖帖》이라는 제목은 그 내용에 따라 필자가 정한 것임을 밝힌다. 영국도서관에는 Scenes in China (소장번호: Or. 14390)라는 제목으로 소장되어 있다. 화첩의 열람과 조사에 협조해 주신 Beth Mckillop 선생님께



도19 작자미상 〈降仙樓〉,
《韓中名勝圖帖》,
紙本淡彩, 35.6×49.0cm,
영국도서관 ©British
Library Board, All Rights
Reserved (Or.14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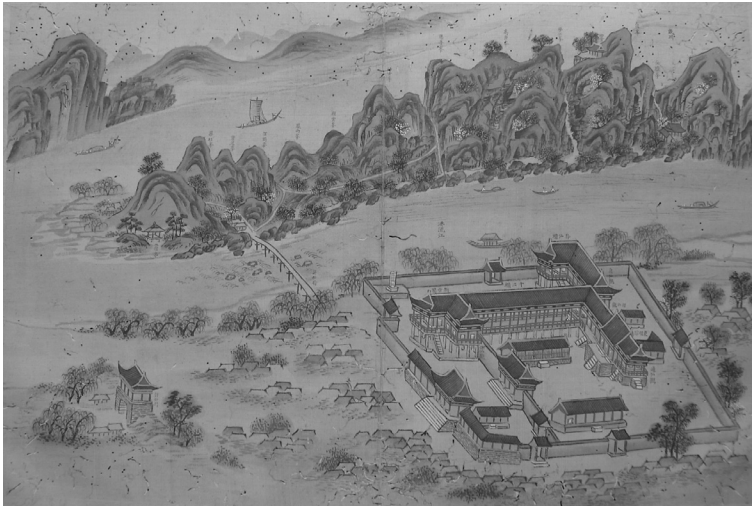
이 확인된다. 총 10폭의 그림 중 4폭이 《관서명구첩》 유형에 속하는 장면이다. 이 화첩의 서두에는 行草로 쓰인 시와 “병자년 6월 하초가 조카 이돈중에게 써주다(丙子夏季 書與李姪敦中霞樵)”라는 관지가 있다. 그런데 시는 陶潛의 「讀山海經」 13수 중 넷째 수여서 그림의 내용과 무관하다. 이 墨書를 霞樵에게서 받은 李敦中(1703-?)은 평안도병마절도사를 지낸 바 있는 李澤(1651-1719)의 손자로 추정된다.⁴⁹ 그의 생존연대를 참작할 때 ‘丙子年’은 1756년이 되며, 그림이 그려지기 이전에 별도로 쓰인 墨書를 후대 裝潢하면서 오려붙인 듯하다. 《한중명승도첩》의 경우 《관서명구첩》 유형보다 시점을 당겨 더 협소한 경관을 조망하였고, 그 방향도 약간 다르다(도19, 4). 특히 〈백상루〉는 청천강의 물길을 가르는 七佛島에 20여 마리의 방목된 가축이 그려져 색다른 분위기를 낸다. 전체적으로 이미 정형화된 화풍이 지배적이나 형식화 경향이 보이고 세부표현의 기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한중명승도첩》은 《관서명구첩》 유형을 母本으로 삼아 차후 다른 화가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關西八景圖帖》은 총 16폭으로 이루어진 화첩으로 묘향산을 비롯한 관서 일대의 명승이 靑綠彩色 화풍으로 그려졌다(도20, 4).⁵⁰ 수록 장면이 더

감사드린다.

⁴⁹ 『司馬榜目』에 의하면 李敦中은 字가 汝厚, 본관은 전주, 거주지는 서울이며, 1735년(영조 11) 乙卯增廣試에서 生員 3등으로 합격하였다.

⁵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關西八景圖帖》의 전체 도판은 「다보성 고미술 명품전」(다보성 고미술 전시관 1996), 도 131 참조



도20 작자미상,
《絳仙樓》,
《關西八景圖帖》,
絹本彩色,
40.0×61.3cm,
서울역사박물관

많고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나 내용이나 구성, 표현 등은 《관서명구첩》 유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중명승도첩》과 마찬가지로 형식화 기미가 확연하여 좀더 시기가 내려오는 작품으로 짐작된다.

이상과 같이 여러 작품의 내용과 양식이 상호 교차하며 맞물리는 양상은 어느 시기엔가 《관서명구첩》 유형이 관서명승도의 일 정형으로 자리잡았음을 말해준다. 《관서명구첩》과 《관서십경도》의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평양명소로만 꾸민 《평양팔경도》가 전하는 것은 원래의 초본이 10폭 이상이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즉 관서의 대표적 명승을 선정하되 같은 대상이라도 상이한 시점과 경물로 초본을 만들었고, 완성본 제작 시 적절히 취사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중명승도첩》과 《관서팔경도첩》은 유형화된 관서명승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 재생산된 결과물이라 하겠다.

IV. 《關西名區帖》 유형의 제작시기와 화가에 대한 추론

상론한 대로 개인 소장 《관서명구첩》 유형은 18세기 말 화원화가에 의해 그려진 진경산수화이고 양식적으로 김홍도의 화풍과 친연성이 강하다. 이를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제작시기와 화가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정조의 시 「제관서지도, 세 수는 하나같이 해당 누정과 주변 풍광이 빛어내는 흥취를 담고 있다. 그 중 아래의 시 〈강선투〉는 장

대한 규모의 누대를 상찬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로 다투어 말하길 관하 요새의 제일주로	爭說關河第一州
중원에도 쉽게 이런 누각 있지 않다 하나니	中原未易有斯樓
우물 속에 앉아 하늘 보는 것과 흡사하여라	恰如坐井觀天大
예로부터 동방 사람은 눈구멍이 좁다오 ⁵¹	自是東人眼孔蹙降仙樓

강선루는 성천의 객관 모퉁이에 위치한 누정으로, 光海君이 다녀간 후 朴燁(1570-1623)에게 중수를 명하여 전체 규모가 363칸이나 되었다고 한다.⁵² 제시의 두 번째 구절에 있는 ‘이런 누각’은 강선루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중국에 비유할 정도로 그 명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말미에 명시한 ‘강선루’가 초점을 이루며 특정 경물, 곧 강선루의 위용을 강조하는 기조는 주요 건물을 점경으로 처리하는 수준의 도해식 지도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정조는 이른바 관서명승도처럼 구체적이고 회화성이 강한 ‘지도’를 열람하고 題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4). 나아가 정조가 열람한 ‘관서지도’가 《관서명구첩》유형처럼 이름난 누정을 비중 있게 묘사한 그림지도를 모아놓은 것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 후반 姜世晷이 澹拙 姜熙彦(1738-1792년경)의 《仁王山圖》에 부친 제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경을 그리는 일은 지도와 흡사하게 될 우려가 많은데,
이 그림은 십분 팝진함을 얻었고 화가의 법도도 잃지 않았다.⁵³

이는 진경산수와 지도의 관계를 방증하는 기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강희언의 〈인왕산도〉는 도화동 쪽에서 바라본 인왕산을 그린 진경산수화이다. 그런데 강세황이 굳이 이 작품에 이러한 내용의 제발을 남긴 것은, 당시 세간에 〈인왕산도〉처럼 회화와 방불한 지도가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조가 본 ‘관서지도’를 일반적인 지도 그 자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華城全圖〉는 화성 일대의 지리적 형국을

51 번역은 정조, 임정기역, 『국역 홍계전서』 제 권 (민족문화추진회, 1998), p. 16에서 개인용.

52 李植, 『澤堂先生集』卷2, 「降仙樓可使相次月沙諸公韻」; 崔德中, 『燕行錄』[이익성 역, 『국역 연행록선집』Ⅲ (민족문화추진회, 1976), pp. 182-183]; 李肯翊, 『燃藜室記述』別集 卷16, 「地理典故 山川形勝」 참조.

53 “寫真景者每患似乎地圖 而此幅既得十分逼真 且不失畫家諸法” 姜熙彦의 《仁王山圖》는 『山水畫』下, 한국의美 12 (중앙일보사, 1982), 도 18 참조.

담은 지도이면서도 회화적 성격이 강한 도설 판화이다. 더욱이 18세기 들어 급증하는 주요 城市全景을 담은 회화식 지도에는 지도와 회화의 경계가 모호한 예가 많다. 저간의 사정은 18세기 후반 정조 대 관서명승도의 실상과 동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관서명구첩》유형의 내력을 직접 설명하는 題跋文이 없는 만큼 제작계기나 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화풍과 인장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겠다. 이미 살펴본 대로《관서명구첩》유형의 양식은 김홍도 화풍과 연관되는 18세기 말 화원풍이다. 더욱이《관서십경도》에는 김홍도의 인장까지 찍혀 있는데, 이를 단서로 김홍도 행적에서 관서지역과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면 연행을 들 수 있다. 조선 중기《관서명구첩》의 작가로 거론되는 나옹 이정도 17세기 초 禾谷 鄭賜湖(1553-?)를 따라 사행했다고 전한다.⁵⁴ 1644년 작〈百祥樓圖〉를 남긴 趙翼(1579-1655) 역시 1599년 書狀官으로 사행한 바 있다.⁵⁵ 김홍도와 비슷한 시기 연행에 참여했던 화원화가 중 진경산수화를 남긴 인물로는 김홍도 외에도 復軒 金應煥(1742-1789)과 古松流水館主人 李寅文(1745-1821)이 확인된다. 김응환은 1783년에, 이인문은 1795년과 1796년에 2년 연속 차출되었다.⁵⁶ 그러나 현존작으로 파악되는 그들의 화풍은《관서명구첩》유형과 거리가 있다.

『日省錄』 1789년(정조 13) 8월 14일조에 실린 아래 기사에 의하면, 김홍도는 冬至使行을 앞두고 있던 李性源(1725-1790)의 주청에 의해 軍官자격으로 동료 李命基와 함께 사행단에 포함되었다.⁵⁷

이성원이 동지정사로서 이뢰어 말하기를 “김홍도와 이명기를 이번에 마땅히 데리고 가야 하는데, 원래 정해진 직책으로는 옮겨줄 방도가 없으니, 김홍도는 臣의 軍官자격으로 추가 신청하고, 이명기는 금번 畫師 외의 추가 정원으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⁵⁸

⁵⁴ 이원복, 앞의 논문, p. 47; 鄭丞娟, 「懶翁 李楨의 生涯와 繪畫」(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6), pp. 18-19. 鄭賜湖는 1601년(선조 34) 謝恩使 正使로 연행하였다. 鄭恩主 「朝鮮時代 明清使行 關聯 繪畫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2), p. 475 참조.

⁵⁵ 임기중, 앞의 책, p. 13.

⁵⁶ 姜寬植, 「朝鮮後期 奎章閣의 差備待令 畫員制」, 『淵松文庫』 47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4), 表 I-3 및 表 II 참조.

⁵⁷ 『日省錄』 正祖 13년 8월 14일 丁卯; 吳柱錫, 앞의 책, p. 170 참조.

⁵⁸ 『日省錄』 正祖 13년 8월 14일 丁卯, “性源以冬至正使啓言 金弘道 李命祺(基) 今當率去 元稟無推移之道 金弘道則請以巨軍官 加啓請 李命祺(基)則當次畫師外加定 率去 從之”; 『承政院日記』 正祖 13년 8월 14일 丁卯; 吳柱錫, 위의 책, p. 170.

김홍도는 10월에 정사 이성원이 이끄는 동지사 일원으로 한양을 떠나 이듬해 2월 20일 귀국하였다. 따라서 그는 왕복 사행길에 경유하는 평양과 그 밖의 관서명승을 체험했을 것이다. 『정조실록』 1790년(정조 14) 2월 20일조에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성원이 북경에서 가진 행사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다.⁵⁹ 정조에게 날짜별로 비교적 소상히 전하지 만, 아쉽게도 더 이상 김홍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동지사행의 정사였던 이성원은 조선 중기의 문신 月沙 李廷龜(1564-1635)의 후손으로 자는 善之, 호는 湖隱이며, 본관은 연안이다. 그는 1786년 奎章閣 直提學을 지냈고, 요직을 두루 거쳐 재상의 반열에 오른 정조의 측근 인사 중 한 사람이었다.⁶⁰ 당시 이성원과 김홍도의 활약상으로 미루어 두 사람은 사행 이전부터 면식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비대령화원제도의 운영은 물론이고 정조 대 주요 繪事가 규장각의 지휘 아래 추진된 점이나 '30여 년간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김홍도를 시켜 주관케 했다'는 정조의 술회를 상기할 수 있다.⁶¹ 이성원이 특별히 김홍도를 지명하여 자신의 군관자격으로 사행에 동참시킨 것은 그처럼 사전에 쌓인 친분관계가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또 이성원은 1783년 平安道 觀察使로 부임한 바 있어 관서지역 명승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⁶² 더욱이 사행에는 으레 유람이 수반되므로 이성원이 수행한 김홍도에게 관서명승도를 주문했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이성원의 선조 이정귀는 다섯 차례나 사행하였고, 1604년 사행 때는 요동의 千山과 角山, 閻山 등을 유람하고 遊記를 저술하였다.⁶³ 또 酒宴을 기념하는 契會圖와 개성의 박연폭포 유람을 담은 계축을 제작케 하기도 했다.⁶⁴ 1712년(숙종 38) 동지사행 때, 군관자격으로 사행했던 老稼齋 金昌業(1658-1721)은 이정귀의 遊記를 휴대한 채 같은 여정을 답사했는가 하면, 귀로에 일부러 영변 약산동대를 찾아가기도 했다.⁶⁵ 당시 김창업과 동행했던 崔

⁵⁹ 『正祖實錄』 14년 2월 20일 辛未; 이태호·박정애, 「檀園 金弘道の 예술활동과 업적, 그리고 華城」, 『水原學研究』 第4號 (水原學研究所, 2007. 12), p. 121.

⁶⁰ 『正祖實錄』과 『弘齋全書』에는 이성원이 정조가 총애한 신하였음을 말해주는 기사가 많이 실려 있다. 예를 들어 『弘齋全書』 卷21, 「祭文三 判中樞府事李性源致祭文」이나 卷23, 「祭文五 文肅公李性原 內閣待教李崑秀致祭文」에는 이성원과 이근수父子가 세상을 떠나자 이기는 신하들을 잃고 애통해하는 정조의 심정이 담겨 있다. 또 이성원의 從兄 李福源(1719-1792)의 문집 『雙溪遺稿』 卷7, 「從弟左議政墓誌銘」은 이성원의 생애를 정리한 자료로서 참고가 된다.

⁶¹ 『弘齋全書』 卷7, 「謹和朱夫子詩」 “金弘道工於書者 知其名久矣 三十年前圖眞 自是凡屬繪事 皆使弘道主之”

⁶² 『正祖實錄』 7년 3월 9일 庚子 및 同年 3월 20일 辛亥 참조.

⁶³ 李廷龜, 『月沙集』 卷4, 「甲辰朝天錄上」; 金炫志, 앞의 논문, pp. 112-113.

⁶⁴ 李廷龜, 『月沙集』 卷4, 「甲辰朝天錄上」 및 『月沙集』 卷5, 「甲辰朝天錄下」; 金炫志, 위의 논문, pp. 113-115.

⁶⁵ 金昌業, 『燕行日記』 卷9 [이장우 역, 『국역 연행록선집』 IV (민족문화추진회, 1976), pp. 576-578].



도21 작자미상,
《統軍亭》,
《關西八景圖帖》,
絹本彩色,
40.0×61.3cm,
서울역사박물관

德中도 가는 길에 노정에서 벗어나 성천 강선루를 둘러본 바 있다.⁶⁶ 이처럼 때로 사행도중 수십 리 길을 돌아 명승지를 유람한 기록이 전하긴 하지만, 당시 김홍도가 멀리 떨어진 강계까지 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도1).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서십경도》의 모든 화면에 찍혀 있는 부인도서 “정경부 인신씨”라는 작호가 이성원의 부인과 일치하여 주목된다.⁶⁷ 이성원은 사행도중 병을 얻었고, 귀국 후 한 달여 만인 4월 1일 세상을 떠났다.⁶⁸ 이는 기유년 동지사행에 대한 기록이 드문 이유 중 하나인 듯하다.⁶⁹ 따라서 훗날 이성원 집안에서 소장했던 작품에 이성원의 부인도서가 찍혔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또 1723년 4월 遠接使로 의주에 파견된 趙泰億(1675-1728)이 제작케 한 《龍灣勝遊帖》의 〈통군정〉은 채색으로 봄날의 풍치를 살리고 있다. 그와 달리 《관서명구첩》 유형의 〈통군정〉이 채색화풍의 《관서팔경도첩》까지 공히 冬景으로 그려진 점도 동지사행의 계절색을 반영한 탓이 아닌가 싶다(도2, 21).⁷⁰ 그러나 아직 ‘복

⁶⁶ 崔德中, 『燕行錄』[이의성 역, 『국역 연행록선집』Ⅲ (민족문화추진회, 1976), pp. 182-183].

⁶⁷ 『內閣日曆』 純祖 4년(1804) 8월 15일 辛未, 「上之四年甲子八月十五日辛未晴」 “本閣啓曰 提學李性原妻貞敬夫人申氏卒逝云 賻物依定式 輸送事分付戶曹 何如 傳曰允”

⁶⁸ 『正祖實錄』 14년 4월 1일 辛亥.

⁶⁹ 현재 이성원의 文集이 전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이성원의 외아들로 규장각 대교를 지냈던 李崑秀(1762-1787)는 부친이 함경도관찰사로 재직 중이던 1787년(정조 11)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양자로 들인 李若愚(1782-?)는 조부 이성원 사망 당시 9세에 불과하여 선조의 遺命이 착실히 수습되지 못한 듯하다.

⁷⁰ 《龍灣勝遊帖》도판은 『國立中央博物館韓國書畫遺物圖錄』 第4輯, 靑綠山水畫 六一帖 4·5冊 (국립중앙박물관

표 6 지비대령 녹취제 關西 관련 畫題

	시기	날짜	화제	비고
1	현종 2년	1836년 9월 9일	浮碧樓	來冬等 祿取才 三次榜
2	현종 15년	1849년 3월 18일	降仙樓	去乙巳(1845)秋等 祿取才 再次榜
3	현종 15년	1849년 5월 19일	練光亭	去戊申(1848)春等 祿取才 再次榜
4	철종 2년	1851년 3월 19일	練光亭	來夏等 祿取才 再次榜
5	철종 4년	1853년 3월 17일	練光亭	來夏等 祿取才 三次榜
6	철종 13년	1862년 9월 6일	小金陵 平壤	
7	고종 6년	1869년 9월 18일	大野東頭 點山	來秋冬等 祿取才 初次榜
8	고종 15년	1878년 10월 17일	練光亭	冬等 祿取才 三次榜

현의 주인공이 규명되지 않았고 김홍도의 인장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어 단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 《관서명구첩》유형이 18세기 말 정조 대에 활약한 화원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또 김홍도의 관서명승도가 1788년 작 ‘금강산도’처럼 하나의 정형이 되어 당대와 후대 화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정된다.⁷¹

이후 19세기에도 문인묵객들의 발길이 관서지역을 향했음은, 橘山 李裕元(1814-1888)이 연광정·담담정·통군정·강선루·황학루·백상루 등 《관서명구첩》유형에 그려진 누정들을 유람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⁷² 동시에 관서명승도가 꾸준히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종 대부터 고종 대까지 규장각 差備待令 畫員의 祿取才 화제로 누차 부벽루와 연광정, 강선루 등이 출제되었기 때문이다(표 6 참조).⁷³ 이러한 내각의 분위기는 지속적인 관서명승도 제작에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관서팔경도첩》을 위시해 현전하는 19세기 평양도가 상당량에 달하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06), 도 15 참조

⁷¹ 朴銀順著, 『金剛山圖 연구』(一志社, 1997), pp. 330-353 참조

⁷² 李裕元, 『林下筆記』卷26, 『春明逸史』.

⁷³ 姜觀錫,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상 (돌베개, 2001), pp. 127-128, pp. 408-422 참조.

V. 맺음말

평안도의 명승지를 그린 관서명승도는 현전하는 양이 적지 않고 나름의 완성도를 담보하고 있다. 조선시대 평안도는 중국과의 접경지대로서 군사와 외교 면에서 특히 중요하였다. 또 사신들의 노정 인근에 분포한 명승지는 문학과 미술의 체계가 되었다. 문헌기록을 통해 15세기 후반-16세기 초에는 평양 명승이 알려졌고 이어서 그림으로도 그려졌음이 확인되었다. 16세기 중반 명종 대 이후에는 이정의 전칭작 《관서명구첩》처럼 평양 외의 지역도 화폭에 수렴되었다. 대개 옛 도읍으로서 평양의 역사성을 높이 샀고, 조선 중기에 지방관들이 명승도를 그려 바치는 관행이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창흡의 關西日記나 정조의 關西地圖는 18세기 들어 진경산수화가 유행하면서 관서명승도가 정형화되는 양상과 관련되는 사료라 여겨진다.

작화대상과 구성, 화풍이 유사한 일군의 관서명승도는 작자미상의 《관서명구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소장 《관서명구첩》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서십경도》는 화면의 크기까지 거의 같아서 정형화된 양태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영국도서관 소장 《한중명승도첩》과 서울역사박물관의 《관서팔경도첩》은 《관서명구첩》 유형이 저변화된 양상을 반영한다. 이 유형에 적용된 양식은 18세기 말 화원화풍이 대세를 이룬다. 남종화법과 함께 지도와 판화의 표현법도 간취되며 김홍도 화풍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개인소장본의 ‘복현’이 해명되지 않았고, 국립중앙박물관본의 김홍도 인장이 後落으로 의심되어 작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화풍과 인장을 토대로 《관서명구첩》 유형의 제작시기와 화가를 추론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 실마리로 삼고자 했다. 김홍도는 1789년 동지사행을 계기로 관서지역을 방문한 바 있고, 특별히 주청하여 김홍도를 동행시켰던 이성원은 평안도관찰사를 지낸 적이 있어 당시 관서명승도를 주문했을 여지가 생긴다. 《관서십경도》에 찍힌 ‘정경부인신씨’라는 인장이 이성원 부인의 작호와 일치하는 것도 그의 집안과 연계되는 자취이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작품들을 김홍도가 그렸다고 확단하긴 어렵지만, 18세기 말 화단의 동향을 참작할 때 김홍도에 의해 정형화된 저본에서 파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관서명구첩》 유형이 제작된 시기의 상한선은 일단 18세기 말에 가 닿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처럼 관서명승도는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의 복원과 시기별·작가별 화풍의 변천상을 추적하는 데 긴요한 주제이다. 차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작품의 추가 발굴이

요구된다.

* 주제어(key words) — 관서명승도 (painting of scenic spots of Gwanseo Province), 진경산수 (True-view landscape painting), 실경산수 (real scenery landscape painting), 평양도 (painting of Pyongyang City), 김홍도 (Kim Hong-do)

■ 투고일 2008년 2월 25일 | 심사일 2008년 3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9일 ■

關西名勝圖는 關西地方, 즉 平安道의 명승을 그린 實景山水畫이다. 그동안 실경산수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관서명승도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관서 관련 화적은 平壤만을 다룬 작품이 가장 많지만, 이 글에서는 여러 폭이 한 벌을 이루는 조선 후기 관서명승도에 집중하였다.

조선시대 평안도는 중국과의 접경지대로서 군사와 외교 면에서 특히 중요하였다. 또 使臣들의 노정 인근에 분포한 名勝名所는 文學과 美術의 제재가 되었다. 문헌기록을 통해 15세기 후반-16세기 초에는 관서지역의 거점인 평양명승이 알려졌고 이어서 그림으로도 그려졌음이 확인되었다. 16세기 중반 明宗代 이후에는 懶翁 李楨(1578-1607)의 傳稱作 《關西名區帖》처럼 평양 외의 지역도 화폭에 수렴되었다. 金昌翁(1653-1722)의 《關西日記》나 正祖(계위 1776-1800)의 詩 「題關西地圖」는 18세기 들어 진경산수화가 유행하면서 관서명승도가 정형화되는 양상과 연관되는 사료이다.

작화대상과 구성, 화풍이 유사한 일군의 관서명승도는 작자미상의 개인 소장 《關西名區帖》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 소장 《관서명구첩》과 국립중앙박물관의 《關西十景圖》는 화면의 크기까지 거의 같아서 정형화된 양태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영국도서관 소장 《韓中名勝圖帖》과 서울역사박물관의 《關西八景圖帖》은 《관서명구첩》 유형이 저변화된 양상을 반영한다. 이 유형에 적용된 양식은 18세기 말 畫員畫風이 대세를 이루는데, 南宗畫法과 함께 地圖와 版畫의 표현법도 파악되며 檀園 金弘道(1745-1806 이후) 화풍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개인 소장본의 ‘靉軒’이 해명되지 않았고 국립중앙박물관본의 김홍도 인장이 後落으로 의심되어 작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화풍과 인장을 토대로 《관서명구첩》 유형의 제작시기와 화가를 추론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 실마리로 삼고자 했다. 김홍도는 1789년 冬至使行을 계기로 관서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또 정조에게 주청하여 김홍도를 자신의 군관자격으로 동행시켰던 湖隱 李性源(1725-1790)은 平安道觀察使를 지낸 적이 있어 당시 관서명승도를 주문했을 개연성이 있다. 《관서십경도》에 찍힌 ‘貞敬夫人申氏’라는 인장이 이성원 부인의 작호와 일치하는 것도 그의 집안과 연계되는 지취이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작품들을 김홍도가 그렸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18세기 말 김홍도에 의해 정형화된 저본에서 파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 Study on Paintings of Scenic Spots of Gwanseo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Park Jeongae*

Paintings of scenic spots of Gwanseo (關西名勝圖) depict the scenic beauty of Pyeongan province.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progress in the study of Korean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but paintings of scenic spots in Gwanseo area have not attracted much attention. Actually, the majority of paintings of scenes from this area illustrate only the views of Pyongyang city. But this author deals with paintings depicted widely the beauty spots of Gwanseo in this article.

During the Joseon Dynasty Pyeongan province was bordering with China and it was therefore a very important area from a military and diplomatic viewpoint. Moreover, as envoys of China and Joseon passed through this province, the well-known scenes of beauty which were located on their route became subjects of arts and literature. According to documentary records, some scenic spots in Pyeongyang City were known in the latter half of the 15th century and the early 16th century, and it is known that they were also painted. From the mid-16th century onwards, other scenes from Gwanseo area were also painted, as exemplified in an album titled *Album of Famous Spots of Gwanseo* (關西名區帖), attributed to Yi Jeong (1578-1607). Writings such as the *Dairy of Ganseo* (關西日記) by Kim Chang-heup (1653-1722) and the *Colophon on*

* Ph.D. Candidat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wanseo Map (關西地圖) by King Jeongjo (r. 1776–1800) helped bring focus to scenic spots in Gwanseo. As a result, when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became popular in the 18th century, well-known beauty spots from this area had already become standardized.

A number of the paintings of Gwanseo sceneries with similar subject matters, composition and style can be classified as a type of *Album of Famous Spots of Gwanseo*. The anonymous album now in a private collection, and *Ten Scenic Spots of Gwanseo* (關西十景圖) kept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re almost identical, even in their size, thus highlighting the standardization of such types of paintings.

The *Album of Scenic Spots in Korea and China* (韓中名勝圖帖) kept at the British Library in London and the *Album of Eight Scenic Spots of Gwanseo* (關西八景圖帖) housed in the Seoul Museum of History show broad expansion of the genre. The painting style of these albums shows strong characteristics of the style of Southern school painting as well as court paintings of the end of the 18th century, in particular maps and woodblock prints. At the same time we can see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 style of Kim Hong-do (1745–after 1806). The album in the private collection bears a signature of Bokheon (伯軒) though the identity of the painter is still unclear. The painting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ears a seal of Kim Hong-do but it is possible it was added at a later date. We should reserved final judgment on the identities of the painters for these reasons.

This author has attempted to find further ways of studying the paintings based on painting styles and seals. Kim Hong-do visited the Gwanseo area through the occasion of an winter solstice embassy to China which took place in 1789. At that time Yi Seong-won (1725–1790) who allowed Kim Hong-do's participation in that embassy as qualification for his military escort is recorded as having been a provincial governor of Pyeongnan Province.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e ordered a painting of Gwanseo area at that time. Besides, a seal called "Jeonggyeoingbuin Sinssy" (貞敬夫人申氏) of the *Ten Scenic Spots of Gwanseo* is identical to the peerage of the wife of Yi Seong-won.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works handed down to us now were painted by Kim Hong-do, it is possible that these types of works were painted with reference to the paintings of Gwanseo area which were standardized by Kim Hong-do during the end of the 18th century.